

통합교육적 맥락에서 살펴 본 현대사회 과보호 양육의 문제 -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

정은*

영남대학교

《 요약 》

이제껏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장애학생들의 사회성 결여였다. 하지만 현대사회 과보호 양육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통합교육의 저해 요인은 장애학생들의 부족한 사회성 뿐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의 사회성 결여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보호 양육의 폐단에 따른 아동의 탐색행동 능력 저(低) 발달 문제를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양육방식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교육의 핵심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탐색행동이 중요하며, 이것은 안정된 애착발달을 통해 성취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봤을 때 과보호 양육은 아동의 탐색체계 비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모의 양육방식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양자 모두의 건강한 탐색행동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과보호 양육, 통합교육, 애착발달, 애착행동, 탐색행동

* 교신저자(cpe21@hanmail.ne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을 포함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영장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회적 생존능력, 곧 사회성이다. 감정이입 능력 역시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은 각기 처한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원만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Goleman, 2006: 92-93).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것이 어떤 특정 분야(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적 능력이 현대사회에 들어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사회성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능력들은 과거보다 더 우수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에 비례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타인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과거보다 더 성숙해간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지언정, 사회윤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사회정치적 영역에서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든 흔히 접한다. 통합교육의 현실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닌데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현대사회의 많은 아이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 능력과 개인적 능력 간의 불균형적인 발달은 건강한 통합교육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제까지 사회는 통합교육 저해요인으로 주로 장애학생들의 사회적 미성숙을 지목해 왔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의 미숙함은 비장애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자(장애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기능은 괜찮은데, 즉 충분히 통합교육이 가능해 보이는데 단체생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사회성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통합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또한 후자(비장애학생)의 경우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서툰 우리시대 아이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원만해 보일지 몰라도, 학교생활 혹은 또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있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예: 집단 따돌림, 은둔형 외톨이, 학교폭력, 자살). 현대사회에 들면서 아이들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발달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개개인의 생애사 및 교육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달은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후 어떤 방식의 보살핌을 받고 또 어떻게 교육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통합교육의 현실적 어려움들을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과보호 양육의 문제, 즉 그 교육적 폐해와 연결해 성찰해보려고 한다. 즉 장애 학생은 장애학생대로, 또 비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대로 조금 혹은 경우에 따라 심각하게 과보호 양육되다 보니, 이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상황이나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것이 현재 효율적이지 못한 통합교육의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혜준(2010: 105)의 지적처럼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만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일반교육 어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한 분야의 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과보호 양육의 폐해를 중심으로 장애 학생 및 비장애학생의 사회적 능력 결여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장애학생의 사회적 미성숙은 이들의 생물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의 박탈과 관계가 있다(정은, 2006; Heyden, 2005, 2006; Jantzen, 1999a, 1999b; Sinason, 2000; Vygotsky, 2001). 다만 이러한 연구 관찰 속에서 우리가 이제껏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과보호 양육방식의 부정적인 영향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소위 장애의 경·중보다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장애’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담장허무는 엄마들, 2007; 한사랑어린이집, 2010; 아까시 요요, 2004a, b). 한 마디로, 현대사회의 상당수 아이들이 과보호 양육 하에 자라고 있는 것처럼 장애아동 역시 과보호 양육의 틀 밖에서 예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건이 아동의 ‘장애’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과보호 양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현대사회처럼 그 폐해가 견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문은희, 2011; Sandel, 2010). 자녀양육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라는 관념과, 사랑은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의 가치, 또한 조금 지나치게 자녀의 삶을 간섭한 것까지 죄가 될 수 있냐는 양육자의 주장에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쟁사회는 과보호 양육을 방치하고 부추긴다. 특히 - 사회적 지원제도가 미비한 사회에서 - 장애아동 양육에 있어서 이러한 과보호 양육의 정당성은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양육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육문화는 결국 자녀 문제를 사회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책임지기보다 개별 부모가 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당위성을 낳았고, -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장애인에 대한 가족연대주의 책임 같은 것이다. - 나아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갖가지 사회병리적인 현상들까지 초래하고 있다(예: 존속 살인). 다시 말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

로 양육되고,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합교육의 경우, 그토록 오랜 세월 통합교육을 장려해 왔건만 예를 들어 장애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같은 소외 현상은 줄어들지 않는다. 동시에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관계에서, 아울러 비장애학생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고은우 외, 2009), ‘잘 관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서툰 인간관계 능력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실수도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사회적 관계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아이들을 키우면서(이 연구에서는 이런 양육방식 중 하나로 과보호 양육을 성찰하고자 한다.) 통합교육을 장려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함께 할 능력을 키워주지 않은 채 서로 도와 잘 살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자살이나 학교폭력, 존속 살인 또 은둔형 외톨이과 같은 새로운 혹은 심화된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해 언급했는데, 물론 이런 현상이 모두 과보호 양육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임(자녀 방치) 양육 또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거의 모든 다양한 현상들 배후에 공통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과보호 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강조하건대, 이 모든 문제가 과보호 양육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통된 원인 중 하나는 분명히 과보호 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문제들 모두 현대사회 아이들이 낮은 상황 혹은 갈등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과잉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 중 특별히 과보호 양육이 미칠 수 있는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의 탐색행동 저(低)발달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다.

과보호 양육은 그 내용에 있어 간단히 ‘자녀의 삶에 대한 과잉 개입’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던가, 과잉 통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녀들은 분명 더 건강하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을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방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과보호일 수 있다: Cyrulnik, 2006; 문은희, 2011). 하지만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부모가 더 많이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과잉’ 이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Hodgkinson, 2011: 18, 34, 189-196). <정의란 무엇인가>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Sandel(2010: 101)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현대사회의 과잉 양육은 부모들이 가진 “정복과 지배를 향한 지나친 불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부모다움의 내용이라고 강조한다(같은 책: 82-83). 선물이란 무엇인가? ‘선물’이란 어떤 조건부 행위(예: 공부 열심히

하면 ○○ 선물해 줄게.)가 아니다. 비록 현재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면이 크지만,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상대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고맙고, 기분이 좋으며,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약 ‘내(엄마)가 열심히 키웠으니 아이가 이만큼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자녀는 이미 부모에게 ‘선물’이 아니라 (대부분 보상심리에 기초한) 자기 삶의 ‘투자대상’ (좋은 말로 자기 작품)으로 전락한다. 그런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양육자가 이런 식으로 자녀를 대상화하게 되면 양육자는 당연히 자신이 자녀의 삶에 대해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너를 위한’ 끝없는 통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세상은 엄마(즉 주로 자신을 돌봐주는 주 양육자를 말한다. 보통은 생모이지만 아닐 경우도 있다.)라는 사람이다. 즉 아이의 사회는 주 양육자다. 아이는 주 양육자를 통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자아를 형성하며, 이러한 초기 경험은 자녀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owlby, 2009; Brisch, 2003; Holmes, 2005; Marrone, 2005; Miller, 2006). 물론 어려서의 이러한 대인관계 경험이 평생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의식적인 노력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면 달라지거나 변화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것이 Bowlby의 애착이론이다. 이 연구에서 통합교육적 맥락에서 과보호 양육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Bowlby의 애착이론을 그 중심에 놓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유아기 경험과 성인기 대인관계 능력 간의 연계성 때문이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애착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유아와 주 양육자의 유대감이다. 그런데 이 유대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아이가 주 양육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주 양육자를 가짐으로 인해 아이가 낯선 세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갈 수 있는 탐색행동 능력 발달에 있다. 애착과 관련된 일상적 논의들이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면이 크지만, 실제 건강하고 안정된 애착발달의 핵심은 후자, 즉 탐색체계의 활성화에 있다(이보연, 2011; 정은, 2012). 바꾸어 말해, 탐색체계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부모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안정된 애착발달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소 허구적인 안정애착의 모습은 과보호 양육된 아동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육 조건은 낯선 세상에서 결국엔 독립적으로 살아나가야 할 아이에게 필요한 탐색행동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과보호 양육은 아동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문은희, 2011; 조한혜정, 2011; Hodgkinson, 2011),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통합교육 상황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과보호 양육 하의 애착발달 문제를 아동의 탐색체계 활성화-비활성화 가능성과 연결해 살펴보고(II장), 이어서 과보호 양육이 통

합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살펴볼 텐데(III장), 여기서는 효과적인 통합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모두의 건강한 탐색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과보호 양육방식의 변화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일상에서나 학교생활에서나 과보호 양육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미비하다. 주로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계량적 연구방법을 통해 간간히 다루어지고 있을 뿐, 교육이론적인 고민은 많이 부족한 것이다(김나희, 2010; 박아칭, 1998; 신민진, 하은혜, 2010; 이민경, 2010; 장주연, 2009; 정은영, 2008). 따라서 통합교육적 맥락에서 현대사회 과보호 양육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 연구는 현대 사회 양육 및 교육문제 일반을 고민함과 동시에 통합교육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에서, 향후 일반 교육 및 특수교육의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II. 과보호 양육 하의 애착발달

1. 애착발달에 있어서 탐색행동의 중요성

아기가 양육자와 건강한 유대감을 경험하는 것은 이후 아기가 성장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주 양육자, 즉 애착인물은 아기에게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며, 아기는 이를 발판으로 하여 낯선 세계를 자유롭게 탐색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애착이론이 주 양육자와 아기와의 애착관계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이론이 영유아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Marrone, 2005: 62). Bowlby가 강조했듯이 애착은 전 생애에 걸쳐 영속성을 가지고 진행된다(Holmes, 2005). 유아기를 지나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기지를 원하며 자신의 애착인물과 원만한(안정적인) 관계에 있을 때 생산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이제까지 애착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아동 발달의 다양한 가능성을 주로 다루어 왔으며 이 속에서 안정된 애착발달과 내적 작동모델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어 왔다(Brisch, 2003; Marrone, 2005; 정은영, 2008). 하지만 안정된 애착이나 내적 작동모델의 중요성과 더불어 애착이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애착행동과 탐색행동의 상보적 역할(기능)이다. 건강한 애착 발달과 관계해서 사람들은 종종 안정애착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속에서 탐색행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관계가 좋

은 아이면 나가서도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 경우가 많다. 부모와는 관계가 좋지만 또래 관계에서는 외톨이가 되는 아이, 부적응적인 아이, 나아가 폭력적인 아이가 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안정애착의 여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넘어, 자녀의 건강한 탐색행동 능력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아동의 애착발달에 있어서 애착체계와 탐색체계의 상호적 활성화 문제라든가 제2의 애착인물과 같은 내용들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정은, 2006, 2012).

부모(양육자)를 포함한 가정은 아기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환경이다. 이 속에서 아기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애착(유형)은 아기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통 생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유아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아 주는 성인 즉,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이 시기에 애착대상이 보여주는 반응에 따라 아이는 다양한 애착유형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2009: 590). 그런데 이러한 애착발달에 있어서 애착대상의 질에 앞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유아가 애착 대상을 요구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것은 많은 동물 관찰 및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며, 인간의 경우 바로 이러한 시기적 중요성 때문에 애착 대상의 질(사랑이 많은 부모 혹은 신경질적인 부모 등)과 상관없이 아동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같은 책: 331, 338-340).

유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존재로 세상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나간다. 그리고 초기의 애착경험은 내재화 되어서 유아의 자아 개념과 타인에 대한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적절한 애착을 형성한 양육자는 아이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로서 불안을 덜어주고 안정감을 높여주며, 아이는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애착 인물)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롭게 신체적, 사회적 환경을 탐색할 수 있다(백선미, 2009: 5). 애착은 이와 같이 근접성을 성취함으로써 인간이 “상황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탐색을 시작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Holmes, 2005: 116).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에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거나 슬프고 외로운 것처럼(같은 책: 115), 애착은 애착 대상에 대한 “근접성”을 유지하고 이 근접성이 훼손됐을 때는 다시 근접성을 회복하도록 한다(Bowlby, 2009: 279).

이런 맥락에서 Bowlby는 애착과 애착행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떤 아이가 애착되어 있다는 것은 아동이 “특정 인물에 대해 근접성을 추구하고 접촉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애착행동은 이와 대조적으로,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근접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관여하는 다양한 행동 형태들”을 말한다(Bowlby, 2009: 556). 예를 들어 부모와 신뢰적 관계에 있는 아동은 굳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즉 애착행동)을 하지 않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 처한 아동은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즉 애착행동을

한다.)(정은, 2012: 39).

애착발달이 안정적인 때(즉 잘 애착되어 있으므로 애착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없을 때) 아동의 탐색체계는 낯선 세상에 대해 건강하게 활성화된다. 그런데 애착발달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 아동은 애착인물 자체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하므로 애착체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탐색체계의 활성화도는 떨어지게 된다. 한편 애착 대상(주 양육자)과 적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아동은 - 감금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고립 상태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또 다른 안전기지(애착 대상, 즉 제2의 애착 인물)를 찾으려 한다(Brisch, 2003: 45).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린 시절 부모와 힘든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 안전애착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이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2의 애착인물(다른 친척이나 이웃, 교사 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Marrone, 2005: 88; Miller, 2005; 김주환, 2011). 따라서 발달과정에 있어서 아동이 제2의 애착인물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정은, 2006). 아동이 이런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사람(예: 할머니, 이모, 학교 선생님, 동네 형, 누나 등)을 만나 안정 애착을 획득하게 되면 아동은 자유롭게 탐색행동을 해 나간다.

2. 과보호 양육에 의한 아동의 탐색체계 비활성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이 건강하게 자율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변인들과의 접촉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부모 이외 다른 사람들과 개방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과보호 양육 조건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서두에서 과보호 양육이란 간단히 설명해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해 과잉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과잉 개입의 기준은 사실상 매우 모호하며, 이 때문에 과보호 양육에 대한 논의 또한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면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과보호는 부모 개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는데, 이유는 이러한 현상(과보호 양육)이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교육·경제 정책들과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Gilligan, 2012; Sandel, 2010).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 모든 사회적 차원을 감안하여 과보호 양육 문제를 논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므로, 여기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과보호 양육은 보통의 경우 구체적인 ‘자녀 통제’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Hodgkinson(2011: 190)의 지적처럼 “현대의 부모는 온갖 활동으로 에워싸서 아이의 하루를 채운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선의를 담았건 간에 어른이 아이에게 부과한 활동은 사실 통제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같은 책: 195). 문은희(2011: 97)는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부모의 ‘포함’ 단위 심리구조와 과보호 양육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포함’ 단위의 심리구조란 간단히 설명해 “내 안에 자식을 ‘포함’ 하고, 누구보다 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엄마들”의 심리구조를 말한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와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사실상 이러한 ‘포함’이라는 행동단위를 가진 부모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조바심”을 내게 된다(같은 책: 56).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과보호 양육은 실제로 워낙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Levy(1931)가 처음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논문에서 과보호를 언급한 이후 과보호는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문제 상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박아청, 1998: 53; 정은영, 2008: 8; 정은, 2012) 여전히 이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이만큼 열심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면 그것은 자녀의 문제’라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배은망덕하다거나 패륜아와 같은 표현이 이러한 양육문화를 잘 보여준다. 부모든, 사회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자녀 자신의 개인적인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대처양식이 여전히 개별아동을 상담, 치료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사회는 개별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에 넘어질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보호를 위해서지만,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심지어 걸음마를 막 하기 시작하는 아이에 대해서조차 지나친 보호는 아이의 자신감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아이에게 끊임없이 간섭하는 부모의 경우,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아이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부모의 경우, 어느 순간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이 들 때 무기력해진다.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는 순간이 되면 모든 부모가 공허감을 느끼지만, 아이를 좌지우지하던 부모는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공허감으로 힘들어 한다. 아이들이 주체성을 갖고 독립하려고 하면 마치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거나 - 위에서 언급한 ‘포함’ 단위 심리구조가 여기서도 잘 드러난다. -, 아이의 독립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넌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꺾으려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오래도록 어린 아이로 남아있게 하려고 고삐를 죄는 것이다. Forward(2008: 87)는 이에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자식에게 무시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해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를 구분하지 못해 무기력해지는 것이다(같은 책: 88).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이 아마 이에 해당될 것 같다. 부모를 위해 공부하고, 취직하고, 부모님 위주로 기꺼이 인생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 절에서 살펴본 애착행동과 탐색행동의 상보적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친 애착행동과 위축된 탐색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려다 보니, 즉 물리적, 정서적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려다보니, 한 마디로 미래만을 생각하며 양육을 계획하다 보니, 아이들이 현재의 삶을 직접 겪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본의 아니게 자녀들은 비주체적인 생활로 떠밀리게 되는 것이다(문은희, 2011: 89, 107-108).

이와 같이 자신의 욕구, 자아 정체성에게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양육방식은 불가피하게 아동의 탐색체계 비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위축되어 성장한 성인들에게서 이러한 사회적 무기력을 문제시하지만, 부드럽고 친절함 부모, 자녀를 위해 희생적인 부모 역시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자와 마키코(2010)는 심지어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지적한다. “내가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것이 아이들과의 표면적인 대등관계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이다. 즉, 대등이라는 부드러운 옷에 감추어진 강고한 ‘조작·권력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오자와 마키코, 2010: 173). 쉽게 말해 부드러운 말로 포장한 간접적인 통제, 소위 마음의 통제가 오히려 부모교육을 통해 강화되는 면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드러운 통제는 아이가 통제라고 쉽게 깨닫기 힘든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호의와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역시 아이들에게 해로운 정도에 있어서 직접적인 통제 못지않다. 오자와 마키코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좀 뼈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모교육훈련’ 속에서, 한층 빠져나가기 힘든 그리고 제거하기 힘든 부모-아이의 권력 관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즉 겉으로는 민주적인 부모-아이 관계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실은 ‘부모의 고집’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이른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교묘하게 압도적인 아이를 지배하려는 사상과 기법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오자와 마키코, 2010: 179).

이러한 맥락에서 문은희 또한 아이가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위협당하거나 무시당하며 자랐을 경우, 이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줄 모르는 성인이 되고 또 자신의 판단이나 의지보다는 외부 권위와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급급해지는 부정적인 면이 크지만(문은희, 2011: 31), 과도하게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 역시 이후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한 성인이 되는 위험을 크게 안

고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후자의 경우 엄마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같이 자라온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숨 가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같은 책: 37, 아울러 157-160 사례 참고).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효 문화가 있는 경우 이런 삶 속에 감추어진 자녀의 고통은 문제제기는커녕 제대로 인식조차 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

Stern와 후기 Bowlby 학파 등 애착연구가들에 따르면(Holmes, 2005: 125, 293 참고), 어머니의 반응성은 자라는 아동에게 내면화되어, 아이는 자신을 반응 받는 존재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반대로 반응성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는 자극이나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애착에서 반응성(즉각적인 반응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과보호 양육 상황은 어떨까? 일차적으로 과보호 양육 하에서 부모의 반응성은 지나치게 잦은 경향이 있다(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 동시에 긍정적인 반응은 대부분 아이가 부모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심지어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조차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면 오히려 부모가 야단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아동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상징적 표상 능력 및 이에 따른 정서적 처리과정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참을 수 없는 흥분과 고통의 감정을 그들과 애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배출시키는 투사적 동일시로 방향을 틀게 된다. ‘얼어붙어 주시하는 행동’과 같이 확대하는 부모에게 경계를 보이며 매달려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대학생의 고백처럼 과잉보호는 “아이를 위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부모(어른)의 입장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서 오는 순수한 즐거움과 자기자발성, 그리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해나가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동학대’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다를 바” 없으므로(정은, 2012: 48), 넓은 의미에서 아동학대에 속할 수도 있다(같은 책: 49-51). 학대받은 아이처럼 부모의 지시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과보호 양육된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형식(체벌이든 부드러운 조언이든)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내용, 즉 ‘내(부모) 뜻에 따르는 것이 너 스스로를 위한 길이다.’라는 일방적 개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과보호 양육 하에 성장한 아동들은, 최근 정은(2012: 45-51)이 문제제기한 바 있듯이, 세상에 대한 탐색행동 능력 발달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이러한 의존적이고 무책임한 성향은 이후의 삶에도 지속될 수 있다.

Ⅲ. 과보호 양육이 통합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발달을 통해 세계에 대한 적절한 탐색행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해당되며, 아이들의 이러한 건강한 탐색행동이 잘 표현될 때 통합교육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보호 양육이 통합교육에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비장애학생이든 장애학생이든, 과보호 양육 하에 성장한 아이들은 무엇보다 타인 및 다양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결여라는 중대한 약점을 가지게 된다. ‘잘 한다, 예쁘다.’ 하며 키우니, 자식들은 자기가 정말 잘 난 사람인 줄 알게 되고, 학교나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다 남의 탓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설사 이런 식의 ‘착각’의 시작이 바깥, 즉 엄마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로 자가증식(自家增殖)해서 자기(자녀)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보호 양육은 결국 자아도취, 나아가 공감의 결여로 연결된다(문은희, 2011: 232). 앞서(I 장) 사회적 능력은 곧 인간이라는 종에게 “생존능력”과 직결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봤을 때 과보호 양육에 의한 공감능력 결여는 단순히 상호 다름(소위 이질성)을 수용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 후세대의 사회적 생존의 위기와 연결된다. 실제로 과보호 양육된 아이들은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이들에게서 서로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연대의식, 윤리적으로 성숙된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외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은희(2011: 111)는 현대사회에는 - 장애인이 아닌데도 - “사회성이 거의 자폐 수준인”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혼자 할 줄 모르는 아이로 양육되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51). 게다가 앞 장에서 소개한 이러한 양육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모의 ‘포함’ 단위 심리구조는 배제의 원리를 동시에 가지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쉽게 설명해, 과보호 양육 하에서는 내가 ‘포함’하고 있는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갖기 쉬운 것이다(같은 책: 79).

예를 들어 같은 반 장애학생 철수에 대해 비장애학생 광수의 엄마가 광수가 철수와 너무 가깝게는 지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상황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철수는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아이이고, 따라서 광수가 힘들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나오는 (지극히 부모다운) 행동일 것이다. 즉 광수 엄마는 철수가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고, 단지 자신이 엄마로서 자녀(광수)를 사랑하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과보호 양육 속에 감추어진 배제의 논리를 잘 드러내준다. 따라서 이런 조건 속에서 광수와 철수가 자연스럽게 사귀기는 힘들다.

또 다른 예로, 비장애학생이 건강한 탐색행동 능력이 있을 경우에도(사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다 호기심이 많고 열심히 세상을 탐색하는 능력이 있다.) 주위의 잘못된 조언(장애인 과보호적 사고)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 철수와 광수는 같은 반인데, 철수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자. 보통의 경우 광수 엄마와 담임은 광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철수는 몸이 불편한 친구니까 광수 네가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항상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고.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놀다보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몸을 다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철수가 다칠 뻔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 주위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일방적으로 광수를 꾸짖는다. ‘광수 네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앞으로는 철수하고 그런 위험한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말이다. 심지어 비장애학생인 광수가 철수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철수는 아픈 아이니까 광수 네가 참아야 한다.’ 고 타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광수는 과연 앞으로 철수, 또 다른 장애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 죄책감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장애를 가진 친구가 다칠 뻔 했다.’), 철수 혹은 철수와 같은(장애) 아이들과 더 이상 적극적으로 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마디로, 철수를, 장애학생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철수 역시 이렇게 자신이 늘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잘못 배울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장애인에 대한 과보호 행위(양육, 교육)이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잘못된 배려 교육이다.

통합교육은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에게 무조건 양보하고 배려해야 가능한 교육 형태가 아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다시피, 아이들은 차이와 다양함을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귀어 나가는 방법을 태생적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이것은 모든 어린 유아들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본 속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통제(관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의 탐색행동은 만족스러울 수 없으며,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제한된 탐색활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공격적인 행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아동의 호기심(탐색행동의 동기)은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완화되고 해소되는데, 제한된 조건 때문에 외부와 충분히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면 이것은 내면으로 쌓이고 부적절한 형식으로 외화되기 때문이다(Breger, 2003). 따라서 장애,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구분하는 어른들의 소위 교육적 개입은 아이들 본연의 능력개발 및 능력표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박혜준(2010: 114)은 “유아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 자체를 교육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더해지면 통합교육을 훨씬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거나 차이를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making differences ordinary)이기 때문이다”(같은 책: 122).

우리사회는 이제껏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다년간 노력을 해왔다. 장애이해교육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부모든 교사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왜 그럴까? 이것은 마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대화법이나 의사소통기술 같은 화술 중심의 교육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자기표현 능력이 떨어지거나,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화술이나 대화법을 배운다고 해서 대인관계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문은희, 2011: 101; 오자와 마키코, 2010). 이와 마찬가지로 비장애학생이(무조건) 장애학생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암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되면 비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장애학생을 동등한 관계에 있는 급우로 전제하고 관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정은, 2007: 82; 앞에서 예를 들었던 철수와 광수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덧붙여 애착발달을 통한 자아의 형성은 나아가 자기필요를 잘 인식하는 능력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낮은 사람, 낮은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낮선’ 무언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인식이다. 나와 타인, 나와 상황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있는(사회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엄청나게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처한 자아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되돌아보면서 자아가 확장되어 간다. 그런데 부모 중심의 과보호 양육 방식과 같이 자신(자녀)의 표현에 무감한 양육자 밑에서 성장하게 되면 떼쓰는 아이, 욕심부리는 아이가 되기 쉽고,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도한 행위를 하게 되면서 상대와의 소통은 더욱 어긋나게 된다.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자신이 존중되고 보호된 경험을 통해 공간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불안정성을 투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장소의 주인으로서 안전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 분명 자유로워 질 것이다(Holmes, 2005: 314). 하지만 ‘장소의 주인’ 이지 못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늘 관리되고, 그 속에서 순응행동에 따른 칭찬을 받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꾸짖음이나 잔소리를 들으며 생활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앞서 애착은 영유아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발달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래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Marrone, 2005: 10, 268). 즉 과보호 양육에 의한 탐색체계 비활성화 문제가 통합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한 관계능력을 아동들은 자라면서 또래집단 속에서 보완, 해소해 나가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보완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 장에서 강조했듯이, 그 무엇보다 아동이 다양한 또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시간, 공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거나(분리교육과 같은 교육체계) 혹은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이 어른(교사, 부모)들에 의해 계획된 대로 이끌어지는 과보호적 환경이라면 그런 환경은 아동의 보완활동을 지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보호 양육은 장애학생에게 있어서나 비장애학생에게 있어서 모두 이들의 건강한 탐색행동 능력 발달에 상상이상의 지장을 초래하며, 이것은 나아가 ‘모든’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해 나가면서 형성되는 교육공동체(통합교육)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과보호 양육방식의 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교육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부모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앞서 여러 관점을 통해 과보호 양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지만, 실제로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과하더라도 자녀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과보호 양육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자녀를 미래의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미리 보호하려는 부모의 바람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보호의지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미래의 갈등이나 위기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에만 급급했던 기존 세대의 노력이 낳은 지금 현재의 가슴 아픈 현실(청소년들의 낮은 행복감, 자살, 폭력 등)은 보호 양육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조한혜정(Hodgkinson, 2011: 10)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녀를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고 말한다. 바꾸어 표현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면 소위 선견지명을 가지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 그나마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후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Hodgkinson, 2011: 39). 그렇다면 갈등과 고통에 잘 대처하는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아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해 고의적으로라도 아이를 고생시키며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

앞서 과보호 양육 방식 속에 내포된 타인 배제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보호와 배제의 양면은 근본적으로 타인을,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 장에서 예를 들었던 철수와 광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철수의 장애를 주변의 개인들이 책임져야만 하는 열악한 사회적 상황 때문에 광수의 엄마는 광수에게 철수로부터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관계하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육아는 어쩔 수없이 “억제의 문제”로 바뀌어 버린다(Hodgkinson, 2011: 86).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참아야 한다, 나중에 커서 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철수가 장애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광수의 한 급우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면, 광수 엄마는 굳이 광수를 철수와 관계에서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양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처럼 그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야 할 개인들의, 나아가 개인들 간의 삶의 지평과 가능성에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과보호 양육과 관련된 갖가지 폐해들에 대해 개별 부모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서는 곤란하다.

오자와 마키코는 이러한 입장에서, 아동발달상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과보호 양육의 문제 마찬가지로 - 관련된 모든 문제를 부모-아이의 관계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해결책도 아니며 정확한 상황 분석도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란 “결코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자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약점을 가진 존재이고, 그러한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어릴 때의 양육방식은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부모-아이 관계로 아이의 문제를 환원하는 것은 현재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무난한 방법” 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비접함이 묻어 있다고 지적한다(오자와 마키코, 2010: 167-168). 예를 들어, 거칠고 조심성 없는 국민들의 운전습관에 대한 교정 홍보나 재교육 제도는 거의 없으면서 아이가 도로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모를 매도하는 행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정은(2012: 288-289)이 제안하고 있는 ‘사회부모’ 개념은 작금의 혈연 중심의 생물적 부모 개념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개념일 수 있을 것 같다. ‘사회부모’란 간단히 설명해 ‘부모’의 의미를 생모, 생부 혹은 법적인 양육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

(성인)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한다.’ 내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 등과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아이는 그 사회의 관념이나 문화, 각종 제도 속에서 자라며, 이런 의미에서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혈연관계에 있는 양육자(=부모)만이 아니다. 동시에 그 어떤 부모든 자신이 처한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에도, 기존 사회의 못 성인들은 이미 아이 하나 하나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 구체적으로 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법적으로 혹은 혈연적으로 누군가의 부모든 아니든,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회의 모든 성인들은 ‘사회부모’의 자리에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숙한 부모의식이 전제될 때, 현대사회 많은 부모들의 과보호 양육 방식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광수 엄마의 과보호 행동도 해결될 수 있고, 또한 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철수 엄마의 과보호 양육 사고방식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 수많은 ‘철수들’과 ‘광수들’이 글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부딪히고 사귀어 나가면서(즉 서로를 자유롭게 탐색해 나가면서) 삶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내외 연구 결과들(박혜준, 2010; Bricker, 2000; Flem & Keller, 2000)은 하나같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조건으로 사회통합을 지목한다. 이러한 사실을 과보호 양육자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과보호 양육은 분명 어른들 자신이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즉 부모 스스로 사회통합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나아가 아이들까지 고립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Hodgkinson, 2011: 112). 즉 어른들 간의 통합적 삶이 전제되지 못하면서 그 사회적 고립이 자녀에게,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고, 대물림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철수와 광수가 장애학생 대 비장애학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어린이 대 어린이, 급우 대 급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대 사회적 존재로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철수, 광수 두 사람 모두 세상에 대한 적절한 탐색 행동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부모와 사회구성원(성인) 모두가 ‘사회부모’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어왔던 것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행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부모의 열망을 잃어간 자녀들이나 애지중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원치 않게 출산한 자녀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가혹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Cyrulnik, 2009: 52). 자녀의 삶에 대해 갖는 부모의 판타즘이 얼마나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말해 주는 결과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아이든 비장애아이이든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대부분 과보호 양육 조건 하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 결과 이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탐색행동 능력을 제대로 발달시켜 나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다년간의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이제껏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장애학생들의 사회성 결여였다. 하지만 현대사회 과보호 양육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통합교육의 저해 요인은 장애학생들의 부족한 사회성 뿐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의 사회성 결여와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보호 양육의 폐단에 따른 아동의 탐색행동 능력 저(低)발달 문제를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양육 방식 개선에 관해 고민해 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건강한 애착발달의 중요성은 아기가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주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고 낮은 세계를 자유롭게 탐색해 나가는 탐색행동 능력 발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과보호 양육 하에 자라게 되면 이러한 탐색행동 발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특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또한 이러한 탐색체계 활성화는 통합교육 장면에서조차 마찬가지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장애학생은 장애학생대로, 비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대로 과보호 양육 조건 속에서 성장하다보니 상호 충분히 사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보호 양육 행동 속에 내포된 타인 배제의 원리는 불가피하게 통합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내용은 혈연 중심의 부모 개념을 넘어 ‘사회부모’의 차원에서 새로운 부모 자리를 만들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고은우, 김경옥, 윤수연, 이소운 (2009).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서울: 양철북.
- 김나희 (2010).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 담장 허무는 엄마들 (2007). **담장 허무는 엄마들**. 서울: 봄날.
- 문은희 (2011).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고양: 위즈덤하우스.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3.
- 박혜준 (2010). 통합교육의 의미 다시 생각하기 -모든 이들을 위한 통합교육과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59(2), 103-128.
- 백선미 (2009).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성 중독에 대한 ADHD증상과 애착간의 경로 분석.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이민경 (2010).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 기질이 청소년의 걱정 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통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이보연 (2011). **애착의 심리학**. 서울: 웅진 웰북.
- 장주연 (2009).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부적응적 사고 및 정서적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 은 (2006).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한 반(反)분리교육의 중요성. **특수 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557-582.
- 정 은 (2007). **장애, 움직이는 시선**. 대구: 먼뚝.
- 정 은 (2012). **인간발달과 장애 -장애인교육학 II-**.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조한혜정 (2011). 추천의 말. In: Hodgkinson, T. (2011). **즐거운 양육 혁명**(문은실 옮김). 서울, 랜덤하우스, 4-14.
- 한사랑어린이집 (2010). **어린이가 있어야 어린이집이다 I**.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어린이집, 2010년 인권·일상·지역교육팀(미간행).
- 아까시 요코 (2004a). **자폐인 테츠유키. 있는 그대로의 양육 1**(박재국, 이재옥, 고등영 옮김). 서울: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아까시 요코 (2004b). **자폐인 테츠유키. 자립을 위한 양육 2**(박재국, 고등영 옮김). 서울: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오자와 마키코 (2010).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박동섭 옮김). 고양: 서현사.
- Bowlby, J. (2009). **애착**(김창대 옮김). 파주: 나남.
- Breger, L. (2003).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홍강희, 이영식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ricker, D. (2000). Inclusion: How the scene has changed.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1), 14-19.
- Brisch, K. H. (2003). **애착장애의 치료 - 이론에서 실제까지 -** (장휘숙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Cyrulnik, B. (2006). **불행의 놀라운 치유력** (임희근 옮김). 파주: 북하우스.
- Cyrulnik, B. (2009). **관계** (정재곤 옮김). 서울: 궁리.
- Flem, A., & Keller, C. (2000). Inclusion in Norway: A study of ideology in practice.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15*(2), 188-205.
- Forward, S. (2010). **독이 되는 부모** (김형섭, 지성학, 황태연 옮김). 고양: 푸른육아.
- Gilligan, J. (2012).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이희재 옮김). 서울: 교양인.
- Goleman, D. (2006). **SQ 사회지능** (장석훈 옮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Heyden, T. (2005). **한 아이 1** (이희재 옮김). 서울: 아람드리.
- Heyden, T. (2006). **한 아이 2** (이수정 옮김). 서울: 아람드리.
- Hodgkinson, T. (2011). **즐거운 양육 혁명** (문은실 옮김). 서울: 랜덤하우스.
- Holmes, J. (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 (이경숙 옮김). 서울: 학지사.
- Jantzen, W. (1999a). Aspekte struktureller Gewalt im Leben geistig behinderter Menschen. Versuchen, dem Schweigen eine Stimme zu geben. In: Seidel, M., Hennicke, K. (Hrsg.): *Gewalt im Leben von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Reutlingen: Diakonie, 45-55.
- Jantzen, W. (1999b). Geistig Behinderung und Menschenrechte - Bemerkungen zum Begriff der menschlichen Natur. *Marxistische Blätter, 37*(6), 27-31.
- Levy, D. (1931). Maternal Overprotection and Rejection.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25*, 886-889.
- Marrone, M. (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이민희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Miller, A. (2005). **사랑의 매는 없다** (신홍민 옮김). 서울: 양철북.
- Miller, A. (2006).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홍민 옮김). 서울: 양철북.
- Sandel, M. (2010).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강명신 옮김). 파주: 동녘.
- Sinason, V. (2000). *Geistige Behinderung und die Grundlagen menschlichen Seins*. Neuwied; Kriftel; Berlin: Hermann Luchterhand.
- Vygotsky, L. S. (2001). Defekt und Kompensation. In: Jantzen, W. (Hrsg.): *Jeder Mensch kann lernen - Perspektiven einer kulturhistorischen (Behinderten-) Pädagogik*. Neuwied; Berlin: Luchterhand, 88-108.

A Study on Problem of Overprotective Parenting
from the viewpoint of Attachment Theory in the
context of inclusive education

Cheong, Eun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lack of social skills of disabled students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jor obstacle to the inclusive educ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however, the lack of social skills of non-disabled students, mainly resulted from the overprotection of their parents, is also a great hindrance to successful inclusion. In this context, using attachment theory,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the negative effects of overprotective parenting on children's exploratory behavior, and suggest an alternative parenting for the effective inclusive education. It also shows that with secure attachment the children could enjoy greater exploration, which enhanced their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hat parents' overprotection could suppress the development of exploratory behavior. As a conclusion, it suggests the need for the parent education both in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to promote the exploration ability of non-disabled students as well as disabled students. In this way, inclusive education can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Key Words : Attachment Development, Overprotective Parenting, Attachment Behavior, Exploratory Behavior

논문 접수: 2012. 05. 01 심사 시작: 2012. 05. 16 게재 확정: 2012. 06. 15